“청년 고민, 불자들과 함께 해결해요”

취준생 보살핌·커플 맺기 등 청년대상 프로그램 인기

청년 취업난 등으로 3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불교계의 다양한 자비행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위치한 곳이다. 이런 기업들의 다양한 업무능력 개발 강좌도 곳곳에서 열린다. 강남에 위치한 보림선원(선원장 일선행) 서울선원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삼성과 LG 등 대기업 내 취업면접 준비 및 직장 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총 수업시간은 20시간으로 매주 수업시간은 신청자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수열 경영학 박사를 초청해 아시아코치센터의 5R코칭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이 이뤄져 있다. 교재비 외 모든 진행 비용은 선원이 부담한다.

보림선원 측은 “최근 청년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이런 강좌를 마련했다. 코칭은 개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기업 측에서 관심 갖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수업 이수가 취업 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3452-3033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는 미혼 청년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인연만들기 프로젝트 ‘시절인연’이다. 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안국역에 위치한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열리는 ‘시절인연’에서는 30대 미혼 청년불자들이 사찰음식을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소화한다.

대상은 78년생 이하 미혼 청년으로 구글과 카카오톡(@조계사청년회)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추첨을 통해 남자 12명과 여자 12명으로 성비를 맞추고 커플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2월 8일까지다.

서울 보림선원 코칭강좌

서울 조계사 청년인연맺기

광주 증심사 고시촌 밥상

대불련 상담템플스테이도



지난해 실시된 조계사청년회 주최 인연만들기 프로젝트 ‘Happy 佛렌타인 Day’

사진출처=조계사청년회 페이스북

한정민 청년회장은 “2016년 발렌타인데이에 진행한 커플 프로그램의 호응에 힘입어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함께 부처님 도량에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35-3724

광주 고시촌으로 불리는 광주 동구 대의동 일대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따뜻한 불자들의 보시행이 펼쳐진다. 이 지역은 공무원 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곳이다. 대의동에 마련된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자비신행회와 증심사, 그리고 정안사가 힘을 합쳐 100명의 2~30대 청년에게 무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고민하는 청년들은 ‘어머니’와 같은 사찰신도들이 마련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먹고 다시금 힘을 찾는다. (063)271-3555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새내기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충주 석종사에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너의 템플스테이’가 그것이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사찰문화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와 학업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경수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선배들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달리 차담 등 소통의 자리를 보다 많이 배정했다”고 밝혔다. (02)732-023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 16권 발간

업~ 위의당불, 7944항목… 2022년 완간 목표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1932~2012)이 설립한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해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 제16권〈사진〉을 발간했다.

〈가산불교대사림〉 제16권의 표제어는 업(業)부터 위의당불(威儀幢佛)까지로, 7944항목이 수록됐다. 대표 항목으로는 업(業)·여래(如來)·연기심심(緣起甚深)·염화미소(拈花微笑)·오교십리(五敎十理)·오분법신(五分法身)·오지(五智)·욕계(欲界)·운문사(雲門寺)· 위의(威儀)의 등이다.

원고 분량만 2만 매, 4X6배판 1600면에 달한다. 작업 참여 연인원은 1만 4600명에 이르는 대작업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사상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사전의 범주를 근본불교술어는 물론, 범불교권 국가에서 특수하게 변형·토착화되거나 새로이 창출된 각종 술어도 포함했다. 표제어의 한글 순은 물론, 내용 기술에 있어 실질적인 한글화를 도모해 누구나 쉽게 활용가능한 대중적 사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작불사는 지관 스님의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스님은 1982년 ‘불교대사전편찬발원문’을 짓고 편찬작업에 들어갔다. 1991년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해 1999년부터 1~2년에 한 권꼴로 〈가산불교대사림〉을 출간했다.

하지만 지관 스님은 전체 20권으로 기획된 〈불교대사림〉의 완간을 보지 못한 채 제13권 작업을 끝으로 2012년 1월 입적했다. 마지막 ‘ㅎ’ 항목까지 15만 개에 달하는 주요 표제어에 대한 원고를 만년필로 원고지에 직접 써서 마무리해둔 상태였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본책 20권, 색인 1권, 보유 1권 총 22권의 발간을 목표로 편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2019년까지 본책 20권을 펴내고, 2022년 색인 및 연표부·보유편 2권을 출간해 총 22권의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90년 前 경주 불교 문화재들의 본 모습

경주학硏, 1920~30년대 유리건판 사진 700점 공개

약 90년 전 천년고도 경주 불교 문화재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진들이 대거 공개됐다.

경주학연구원(원장 박임관)은 “일본 나라시 아스카엔(飛鳥園)에서 보관해 오던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한국 관련 문화재 유리건판 필름 700여장을 재촬영해 공개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일본인 노세 우시조(能勢丑三, 1889~1954)가 일제강점기에 경주 등지를 방문해 유리건판에 남긴 이 사진은 당시 우리 문화재의 정비되기 전 실태를 확인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주학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아스카엔 측과 교섭한 끝에 지난해 12월 유리건판 3700여장을 복제 촬영했다. 이 중 700여장이 한국과 관련한 사진과 실측도면이다.

노세 우시조가 경주 문화재에 대한 사진을 남기게 된 경위는 1926년 경주 서봉총 금관 발굴 현장을 찾은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 수행단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당시 교토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교실 조수였던 그는 경주의 문화유산에 흠뻑 빠지게 된다. 특히 십이지신상에 매료돼 12지와 관련된 국내 유적지는 모조리 찾아다니며 유리건판 사진으로 남겼다.

이번에 소개된 사진을 보면 1928~1931년 원원사(遠源寺) 터에 완전히 붕괴된 채 벼랑 아래로 방치돼 있던 삼층석탑재를 수습하고 탑지를 발굴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복원하는 모든 과정을 도면과 함께 유리건판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관련 사진만 300여장에 달한다.



1928년 노세가 경주 황복사지 석탑을 촬영한 모습.

그는 경주 황복사지 십이지상과 헌덕왕릉 십이지상을 수차례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다. 예천 개심사지 석탑, 구례 화엄사 서탑, 경주시 미방리 폐동곡사지, 암곡리 무장사지 등의 십이지상을 최초로 주목한 것도 노세 우시조였다. 또 경주의 십이지상뿐 아니라 개성의 고려시대 왕릉 및 중국과 일본의 십이지상을 망라해서 비교 검토했던 것도 그의 연구업적이다.

경주학연구원은 “이번 사진자료 발굴은 지금처럼 정비·복원되기 이전의 신라 왕릉 옛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라면서 “일제강점기의 경주 유적이 처한 상황을 입증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 연구를 위해 보고서 발간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중공의 따라 총무원장 선거 혁신해야”

불시넷, 1월 31일 성명 발표

지난해 불교계에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대중공의에 귀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불교청년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불교환경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는 1월 31일 성명을 통해 오늘날 탈종교화 시대서 불교 내 혁신을 위해서 대중공의에 주저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불시넷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종교인구 비율이 52.9%에서 43.9%로 줄어들고, 특히 불자수가 300여만 명 감소한데 대해 “종교지형 변화의 양상이 확인된 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교가 왜 시민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돌아봐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불교공동체는 동국대 사태, 용주사 문제, 종단 내 언론 문제 등 끊임없는 내홍을 앓았지만 무엇 하나 해결된 것 없다. 미래세대위원회 신설·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등 대중공사서 모아졌던 대중들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모아진 공의를 이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대중공사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대중공사를 통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가 다수 종도들의 뜻임을 확인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 종회서 상정된 총무원장 직선제가 이월되고 총무원장 직선특위위원장 및 선출제도혁신특위원장이 모두 사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종교지형변화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폐단 줄인 선거제를 만들자”

그러면서 “대중공사에 참여했던 종도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선거의 폐단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대중공의를 반영할 바람직한 선거제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종단이 최근 구성한 백년대계본부도 사부대중의 지지와 참여 속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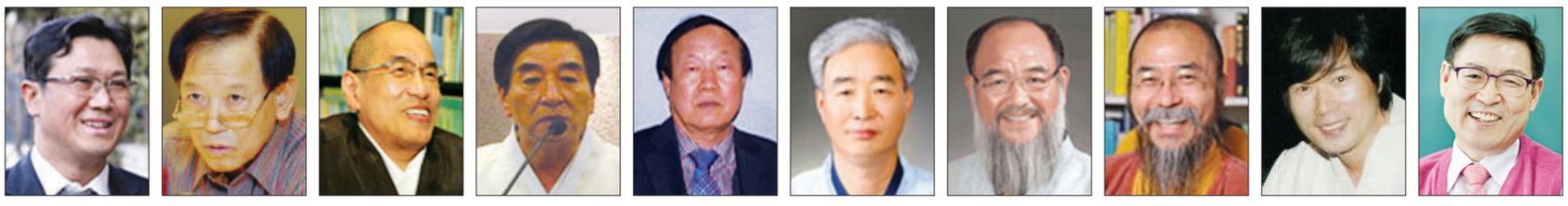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2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23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